

1. 프로그램 기획(안)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연극·영상 바다 탐험 프로젝트 <잃어버린 바다를 찾아서!>
추진배경	○ 부산, “바다가 있어 살기 좋은 도시”? • KNN 뉴스(2025.12.10.)는 <2025 부산사회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라고 답한 부산 시민이 77.4%에 달한다며, 그 근거로 “바다를 끼고 있어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가 많다고 보도함.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짐 <u>‘바다는 어떻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u> • 부산의 바다는 하나의 ‘풍경’에 그치지 않으며,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닿을 수 있는 “블루스페이스(Blue Space)”임. 마음만 먹으면 30분 내외의 생활권 안에서 해안과 수변을 걷고 머무는 경험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일상의 회복을 제공함. 이러한 ‘신체적 접근성’이 부산 시민 특유의 강한 장소 애착을 형성하는 실질적 동인임 ○ 부산의 ‘해양문화’는 ‘관광’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 • 안타깝게도 부산의 해양문화는 ‘광안대교’, ‘갈매기’, ‘해운대’와 같은 평면적인 ‘관광 이미지’로만 소비되고 있음.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미래세대는 자신들이 매일 마주하는 바다를 자신의 언어로 정의하고 기록할 기회를 잃어가고 있음 • 부산의 진짜 해양성은 해변에만 존재하지 않음. 긴 해안선을 따라 주거와 상업, 골목과 시장, 다리와 바다가 한 장면(scene) 안에 겹쳐지는 ‘중첩된 풍경’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부산만이 가진 독특한 해양문화임. 즉, 우리에게 바다는 ‘보는(Watching)’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Living with) 터전’이어야 함 ○ 미래세대를 위한 ‘감각의 기록’, 도시-바다의 정체성 탐구 •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바다 체험이 아님. 미래세대가 도시와 바다가 맞닿은 지점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 속에 담긴 삶의 결을 ‘기록하고 재해석하는 감각’을 일깨우는 데 있음
추진목적	1. 미래세대의 주체적 ‘해양 정체성’ 확립 2. ‘15분도시’ 기반의 로컬 아카이브 구축 3. 영상·연극을 통한 창의적 표현력 및 협업 역량 강화 4. 예술 중심의 관계 확장과 지역 공동체 가치 공유 5. 교육 모델의 지속 가능성 및 공공적 확산 기반 마련
교육주제	해변을 넘어 골목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도시-바다의 접점을 감각적으로 수집하여 공동체의 해양문화를 아카이빙하는 ‘도시 해양성’ 탐구 프로젝트
교육내용	■ 몸으로 놀고 표현하는 바다 연극놀이 • 몸짓과 역할놀이를 파도와 바다 생물 표현하기 • 다양한 사물과 목소리로 바다 소리 만들기 • 즉흥극으로 상상 속 바다 이야기 만들기 • 카메라를 직접 체험하고 짧은 장면 촬영하기 • 친구들과 결과물을 감상하고 발표하기
교육대상	초등학교 1~3학년
교육인원	8명 내외

2. 세부 프로그램 내용

세부 교육(안)				
회차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장소	세부 교육내용
1	8/1(토) 10:00~13:00	3	온그루홀	■ 바다와 처음 만나기 - 이름, 움직임 놀이 - 몸으로 파도와 바다 생물 표현하기
2	8/8(토) 10:00~13:00	3	온그루홀	■ 소리로 만드는 바다 - 다양한 사물과 목소리로 파도, 바람, 바닷속 소리 표현하기
3	8/15(토) 10:00~13:00	3	온그루홀	■ 상상 속 바다 이야기 - 역할놀이와 즉흥극을 통해 잃어버린 바다 스토리 만들기
4	8/22(토) 10:00~13:00	3	온그루홀	■ 카메라로 담는 작은 바다 - 카메라를 직접 체험하고 짧은 장면 촬영하기
5	8/29(토) 10:00~13:00	3	온그루홀	■ 우리가 찾은 바다 - 연극놀이와 촬영 결과물을 함께 감상하는 우리만의 작은 발표회 진행
합 계			총 5회차	